



自然環境의 保全과 慰樂施設의 擴充



具 然 昌
(本 協會報 編輯委員)
(慶熙大 法大學長)

지난 10월 6일 建設部는 北漢山國立公園 基本計劃을 작성·확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960 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計劃의 추진은 自然環境의 保全과 慰樂施設의 擴充이라는 두 側面에서 볼 때 晚時之嘆을 금할 길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적잖은 문제점을 제기시켜 주고 있다. 土地利用規制政策에 있어서 自然環境의 保全과 慰樂施設의 擴充은 때로는 相衝되지만 이들을 적절히 調和시킬 것이 요구된다.

自然環境은 開發行爲와 利用行爲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다. 開發行爲는 自然環境을 대규모적으로 때로는 回復할 수 없게, 그리고 利用行爲는 서서히 그러나 광범위하게 파괴시킨다. 따라서 開發行爲와 利用行爲를 적절히 규제하지 않고서는 自然環境의 保全은 이를 도모할 수 없다. 특히 9萬9千km²의 비좁은 國土에 4,100萬의 人口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效率的인 土地利用을 도모하면서도 自然環境을 保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再言을 요치 않는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自然環境은 ① 國土保全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② 資源의 供給源이 되고, ③ 人間性的 培養 내지 保健休養의 場所로서의 效用이 있고, ④ 環境을 淨化하는 기능을 가지고, ⑤ 學術研究의 場所로서의 效用을

가지는 등 우리 人間에게 그 의의는 중요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自然環境을 그 자체로서 保全·保護하지 않으면 아니될 必然性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政府는 뒤늦게나마 1977년 11월 自然環境의 保護를 위하여 自然保護委員會 規程을 제정함과 함께 自然保護委員會를 조직하고 內務部 主導下에 汎國民的인 自然保護運動을 전개키로 하였다. 특히 1978년 10월 5일에는 自然保護憲章을 선포하고 그 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環境保全法 제9조에서도 自然環境의 保全을 위한 규정을 설정하였고, 1981년의 同法改正에서는 이를 더욱 補完·強化시킨 바 있다.

며칠 전에 自然保護憲章을 선포한지 여섯번째의 돌을 맞았었다. 그간 과연 어느 정도로 自然保護 내지 自然環境의 保全이 실현되고 있는지가 궁금스러워진다.

우연한 기회에 지난 여름 새로이 國立公園으로 지정된 雉岳山의 龜龍寺를 찾을 기회가 있었다. 公園入口에 도달하기까지 몇 km의 포장안된 도로에서 먼지투성이가 되면서부터 그날 하루의 짜증스러움이 시작되었다. 개울과 길은 온통 사람으로 뒤덮혔었고, 그늘이던 그늘에는 수백의 텐트가 자리잡고 있었다.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져 있었고, 높은 볼륨의 라디오, 스테레오 그리고 마이크 소리등.



캠프장은 몇 있었으나 규모가 작고 명멸 아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 텐트를 치려하지 않는 것 같았다. 캠프장의 텐트 치는 자리도 다닥 다닥 붙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모두 개울가이나 나무그늘 밑에 뻥뻥히 텐트를 쳤었고, 심지어는 예비도로 가운데까지 줄을 이어 텐트가 쳐져서 通行을 불가능하게 해 주는 곳도 있었다.

우리 國民의 연간 평균소득이 1,500 불을 넘어 2,000 불로 접근하면서 登山이나 캠핑은 汎國民의 慰樂의 하나로 된 것 같다. 이제 적은 월급을 받더라도 週末엔 登山·캠핑이나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週末을 즐겨야 한다는 當爲感을 가지게 되었고, 週末 慰樂이 自己確認의 기준으로써 된 것 같다.

이렇듯 慰樂을 위해 週末이나 休暇에 山野나 江을 찾는 人口는 날로 急增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施設이 그 需要의 증가를 뒤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雉岳山과 같이 서울에서 2시간내에 있는 國立公園은 수요일에 부응할 수 있는 慰樂施設이 開發·擴充될 것이 특히 요청되고 있다.

急增趨勢를 보이고 있는 慰樂施設에 대한 需要에 應答하기 위하여는 國立公園이나 道立公園등이 開發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都市公園의 경우와는 달리 그 開發은 開發爲主의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保全爲主의 것이어야 한다. 建設部의 國立公園 開發은 公園을 가로지르는 大型道路의 건설, 케이블카의 설치 등으로 代表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온 것 같다. 自然環境의 保全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의 北漢山國立公園 基本計劃은 保全計劃이라기보다 開發計劃의 성격이 뚜렷하며, 建設

部의 전통적인 開發哲學이 지배하고 있다. 이 計劃의 立案에 環境廳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궁금하다. 北漢山이 서울과 接하고 있다는 점에서 都市公園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保全爲主로 재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 계획에 있어 自然環境의 保全과 慰樂施設의 확충이라는 2大 要請을 조화시킬 수 있는 方案으로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自然保存地區를 대폭 확장하여야 한다. 이는 이 지역에 있는 역사적 유물의 保存을 위해서나 서울의 綠地不足現象을 다소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둘째, 이미 부분적으로 파괴된 부분을 復元하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違法施設物을 철거함은 물론 適法화된 시설이라도 현저한 파괴를 가져온 것은 補償을 통하여서라도 回復되어야 한다.

셋째, 索道전차나 케이블카의 설치에 이 계획에서 폐기시켜야 한다.

네째, 충분한 캠핑장과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立地는 몇 군데로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수십군 데로 分散시켜야 한다.

다섯째, 다양하고 분산된 캠핑장의 설치와 함께 캠핑장 이외 지역에서의 캠핑을 금지시켜야 한다. 급수·위생시설과 함께 保安施設이 갖추어진다면 自然環境의 保全에 큰 몫을 할 뿐만 아니라 靑少年 犯罪豫防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

*국민모두 부정외래품을 추방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부정외래품 안사고 안쓰기
- 가짜 외래품 추방
- 국산품 애용하기